

성 암브로시우스의 추도사와 편지 속 포도주

정환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부교수

들어가는 말

1. 포도주와 암브로시우스의 사회교리 저서 및 성경 주해서

2. 추도사와 포도주

2.1. 『형 사티루스의 죽음』

2.2. 『발렌티니아누스의 죽음』

3. 서간과 포도주

3.1. 『서간집』

3.2. 『추가 서간집』

나가는 말

들어가는 말

성 암브로시우스는 로마의 귀족 가문이며 대대로 신앙을 지켜 온 집안의 후손으로, 339년 트리어(Trier: lat. Treviri)에서¹⁾ 태어났다. 밀라노(Milano: lat. Mediolanum)²⁾ 집정관 시절에 당시 주교좌가 공석이 되었을 때, 아리우스주의자들과 정통 교리를 따르는 신

자들 사이의 대립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을 중재하던 암브로시우스는 양측 신자들의 찬성으로 주교로 선출되었고, 그 이후 용기 있는 정통 신학의 수호자, 도덕적 스승, 모범적인 목자, 탁월한 설교가로서 큰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니케아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정직하고 헌신적인 생애로 당시 큰 영향을 끼쳤던 그는, 397년 4월 4일 성주간 파스카 토요일에 사망하여 주교좌 성당에 안장되었다.³⁾

암브로시우스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여러 사목 방향에 대해 많은 주제가 논의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는 서구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포도주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그 윤리적 기준을 세운 분으로 여겨진다.⁴⁾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음주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 폐해를 지도하기 위한 사목자 암브로시우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암브로시우스의 음주론과 관련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본인은 이에 착안하여 믿을만한 비평본인 『암브로시우스 전집(Opera omnia di Sant'Ambrogio)』을 이용해서, 성인의 저서 속에 나타난 ‘포도주(vinum)’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⁵⁾ 이 작업을 이어 본 연구에서도 암브로시우스의 추도사와 서간에 나타난 포도주를 찾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려 한다. 이처럼 암브로시우스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에 관한 생각을 돌아보는 것은, 당시의 음주 문화와 그에 따른 성인의 생각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중세 그리스도교 사회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포도주의 위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아보는 작업이 될 것이며, 더불어 오늘날 우리가 지닌 음주 문화의 문제점을 돌아보는 데에도 새로운 관점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1) 지명은 현재 통용되는 명칭을 기록한 후, 필요에 따라 라틴어 원명을 추가한다. 라틴어 지명은 참조 Caroli Egger, *Lexicon nominum locorum*,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77), 316-317.

2) Caroli Egger, *Lexicon nominum locorum*, 202.

3)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암브로시오」, 『한국가톨릭대사전8』, 한국교회사연구소, (웨판: 분도출판사, 2001), 5874-5876. 그러나 암브로시우스의 탄생 연도를 339년이 아닌 333/334년으로 보기도 한다. 크리스토프 마르크시에스(Christoph Marksches), 「암브로시우스」, 『교부학사전』, 지그마르 뢰프-빌헬름 게어링스 편, 하성수 외 옮김, (횡성: 한국성도마스연구소, 2021), 633.

4) Irving Woodworth Raymond, *The Teaching of the Early Church on the Use of Wine and Strong Drink*,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7), 117.

5) 정환규, 「포도주를 통해 바라본 암브로시우스의 음주론: 사회교리 저서를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47(2021.3), 1-38.; 정환규, 「성 암브로시우스의 창세기 주해서에 나타난 포도주」, 『인간연구』, 45(2021/겨울), 169-202.; 정환규, 「포도주와 성 암브로시우스의 성경 주해서」, 『서양중세사연구』, 49(2022.3), 1-36.

1. 포도주와 암브로시우스의 사회교리 저서 및 성경 주해서6)

포도주는 자연 속에 효모가 포도 속에 당분을 섭취해서 알코올을 만들어 내는 발효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7) 포도주는 맥주와 함께 그 기원을 선사시대부터 논할 수 있을 정도로8) 인류 역사와 오랜 기간 함께 해 온 음료이다. 이런 친숙함 때문인지 많은 이들이 인류가 언제부터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해답을 제시해 왔다. 로버트 더들리(Robert Dudley)는 술에 끌리는 인간의 속성에 관해 연구하면서, 인간이 술에 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이론을 내세우고 이것을 ‘술 취한원숭이 가설(Drunken Monkey Hypothesis)’이라 하였으며,9) 패트릭 에드워드 맥거번(Patrick Edward McGovern)은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포도를 - 구체적으로 야생 유라시아 포도를 - 이용해서 포도주를 마셔왔다는 ‘구석기 시대 가설’을 언급했다.10) 신석기 시대에 들어오면 실제 고고학적 증거로 인류가 포도주를 마신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 북부 허난성(河南城) 지아후(賈湖)의 유적지를 비롯하여11)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남쪽에서 발견된 유적과,12) 자그로스 산맥(Zagros Mountains)에 있는 하지 피루츠(Hajji Firuz)에서 출토된 여러 증거는 이미 신석기 시절부터 포도주가 제조되어 널리 이용되었음을 전해준다.13)

포도주는 교회 역사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포도나무는 성경의 땅인 가나안에서 특징적 과실수로 주요 농산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비록 다른 과일 술이 있

6) 이 책들을 모두 성경 주해서로 묶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장인산은 사회교리 저서 3권도 성서(성경) 주해서로 함께 분류한다. 장인산, 『聖 암브로시오(Ambrosius) 敎父의 생애와 저서, 가르침과 영향』, 『現代가톨릭思想』, 16(1997, 5), 185-193. 하지만 여기서는 본인의 기존 연구에 맞춰 사회교리 저서를 독립시켜 구분하였다. 각주 5 참조.

7) 장홍, 『와인인문학 산책』, (과주: 글항아리, 2020), 19.

8) 톰 스탠디지, 『세계사를 바꾼 6가지 음료』, 김정수 옮김, (서울: 캐피털북스, 2020), 59.

9) 로버트 더들리, 『술 취한 원숭이』, 김홍표 옮김, (과주: 궁리출판, 2019), 12-13.; 이석인, 『포도에서 와인으로』, (서울: 시대의 창, 2022), 24.

10) 패트릭 에드워드 맥거번, 『술의 세계사』, 김형근 옮김, (과주: 글항아리, 2016), 43-45.; Patrick Edward McGovern, *Ancient Win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7-11.

11) 로드 필립스, 『알코올의 역사』, 윤철희 옮김, (고양: 연암서가, 2014), 26. 이 유적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패트릭 E. 맥거번, 『술의 세계사』, 67-117 참조.

12) 명옥, 『술기로운 세계사』, (서울: 포르체, 2020), 23-24.

13) 로드 필립스, 『알코올의 역사』, 28.; 톰 스탠디지, 『세계사를 바꾼 6가지 음료』, (서울: 캐피털북스, 2005), 60. 톰 스탠디지는 이 하지 피루츠의 발견을 포도주의 가장 오래된 증거로 언급하지만, 이것은 지아후 유적지의 발굴 이전의 견해로 추정된다.

있기는 해도, 성경의 시대는 대체로 포도주의 시대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포도주가 주종을 이루던 시대였다. 이런 포도주는 일상에서의 식사에서뿐만 아니라, 종교의식, 잔치, 선물, 외국 무역, 강장제, 치료제 등 여러 상황에서 사용되었다.¹⁴⁾

이렇게 성경 시대에 애용되던 포도주를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알려지는 인물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이다. 이 주장은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포도주의 기원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현상은 고대 사회에서 특이한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시리스(Osiris)가 최초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여겼으며, 그리스인들은 디오니소스(Dionysus)에게서 그 기원을 찾았다.¹⁵⁾ 창세기 9장에서 노아는 이러한 신화적 존재와 같이 인류 최초로 포도주를 빚어 가꾼 사람으로 소개되었고, 덧붙여 포도주를 곁들여서 추태를 보이기까지 한다.¹⁶⁾ 이 이야기는 포도주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준다.¹⁷⁾

서구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이러한 포도주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그 윤리적 기준을 세운 분은 바로 암브로시우스이다.¹⁸⁾ 암브로시우스의 전기를 쓴 파올리누스는, 이미 사망했던 암브로시우스가 성당 제단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을 뿐 아니라, 라디가이우스(Radigaisus)가 알란족, 반달족, 동고트족을 이끌고 406년 피렌체를 포위, 공격해서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¹⁹⁾ 암브로시우스가 환상 속에

14) 임승필, 「성서 안에서의 ‘술’」, 『생활성서』 78(1990.2), 88-89.; 전재동, 「술과 성서의 말씀」, 『성서와 함께』 104(1984), 74. 그리스도교 역사 속의 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 성기문, 『기독교 역사 속 술』, (의정부: 시커뮤니케이션, 2021).

15) 최영수, 「포도주의 기원과 전파」, 『와인에 담긴 역사와 문화』, 최영수 외, (고양: 북코리아, 2007), 27-29.

16) 창세 9, 20-21: 농부인 노아는 포도밭을 가꾸는 첫 사람이 되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15.

17) 하지만 오늘날 성경 연구자들은 이렇게 노아를 포도주의 기원으로 삼는 것에 의문을 던진다. 예를 들어 엄원식은 이 부분을 길가메쉬 서사시와 비교 분석하면서, 이 내용이 포도주의 기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홍수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땅을 경작했음을 전해주는 것이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도 늙어가는 자신의 정욕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용한 것이라 설명한다. 엄원식, 『히브리 성서와 고대근동문학의 비교연구』, (서울: 한울출판사, 2000), 294-295. 하지만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신화적 존재에게 포도주의 기원을 찾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암브로시우스 역시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마무리한다.

18) Irving Woodworth Raymond, *The Teaching of the Early Church on the Use of Wine and Strong Drink*, 117.

19) Angelo Paredi, *Sant'Ambrogio e la sua età*, (Milano: Jaca Book, 2015), 365 & 378.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 도시의 구원을 약속했다고 전하였으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민들은 용기를 내어, 다음날 도착한 스틸리코(Stilicho)와 함께 적을 물리쳤음을 언급한다.²⁰⁾ 이런 일화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성인에 대한 대중들의 심신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전해주며,²¹⁾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왔는지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암브로시우스는 이런 대중들이 지니고 있던 여러 문제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고통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왔는데, 포도주로 대표되는 술로 인한 음주의 문제 역시 그러하였다. 그의 저서에 나타난 음주에 관한 여러 이야기는, 암브로시우스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음주 문화로 인한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 문제를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증언해 준다.

포도주는 암브로시우스의 저서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데, 그 가운데 사회교리 저서 및 성경 주해서 안에 총 220회가 쓰였으며, 그중 64번이 성경의 직접 인용이다.²²⁾

20) 이 두 이야기에 대한 근거는 *Vita Ambrosii* 50,1-2이다: *Intra Tusciam etiam in civitate Florentina, ubi nunc vir sanctus Zenobius episcopus est, quia promiserat petentibus illis illos se saepius visitaturum, frequenter ad altare quod est in basilica Ambrosiana, quae ibidem ab ipso constituta est, visum orare, ipso sancto viro sacerdote Zenobio referente didicimus. In eadem etiam Radagaisus supradictam civitatem obsidebat, cum iam de se penitus desperassent viri civitatis ipsius, per visum cuidam adparuit et promisit alio die salutem illis adfuturam. Quo referente civium animi sunt erecti; nam altero die, adveniente Stilicone tunc comite cum exercitu, facta est de hostibus victoria. Haec Pansophia religiosa femina, matre pueri Pansophii, referente cognovimus.* Christine Mohrmann et al., *Vite dei sancti*, (Borgaro Torinese: Alnoldo Mondadori Editore, 2012), 118-120 & 333.

21) 암브로시우스의 이 일화에 대해,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은 이 사건 이후 암브로시우스가 세속의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기를 그만두었고, 대중에 널리 알려진 성인이 되지 못했다고 여긴다. 에드워드 기번, 『로마제국쇠망사 3』, 손은주·윤수인 옮김, (서울: 민음사, 2009), 141. 하지만 오늘날까지 암브로시우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많은 성명이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다지 올바른 의견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Angelo Paredi, *Sant'Ambrogio e la sua età*, 365.

22) 정환규, 「포도주를 통해 바라본 암브로시우스의 음주론: 사회교리 저서를 중심으로」, 11; 정환규, 「포도주와 성 암브로시우스의 성경 주해서」, 26. 각 저서에서 사용된 포도주의 상세한 예는 해당 논문을 참조하라. 이러한 그리스도교와 포도주의 결합이 고대 디오니소스와 바커스의 추종자들에 의해 확립된 전통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나, 완전히 다른 차이 하나는, 그리스도교가 소량의 포도주를 마시는 반면, 디오니소스 또는 바커스의 추종자들은 만취에 가까운 양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다. 톰 스탠디지, 『세계사를 바꾼 6가지 음료』, 99-100.

저서	성경 직접 인용	일반적 사용	총횟수
『나뭇 이야기』	0	2	2
『토빗 이야기』	2	3	5
『엘리아와 단식』	13	65	78 ²³⁾
소계	15	70	85
『육일창조』	2	12	14
『낙원』	1	0	1
『카인과 아벨』	4	5	9
『노아』	4	7	11
『아브라함』	0	7	7
『이사악 또는 영혼』	3	2	5
『죽음의 유익』	1	2	3
『아곤편과 행복한 삶』	2	0	2
『요셉』	2	8	10
『성조』	4	2	6
『세상 도피』	1	2	3
『열두 시편 해설』	6	9	15
『시편 제118편 해설』	13	14	27
『루카 복음 해설』	6	16	22
소계	49	86	135
합계	64	156	220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한 경우는 사회교리 저서의 경우 15회로 17.65%, 성경 주해서의 경우에는 49회로 36.30%의 비율을 보이며,²⁴⁾ 두 상황을 통합하면 총 64회로 대략 29.09%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것은 암브로시우스가 성경 구절을 자기의 저서 안에 직접 인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그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이해했고, 또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는, 창세기 주석서인 『육일창조』에서부터 유일한 신약 성경 주해서에 해당하는 『루카복음 주해』에 이르기까지, 그의 저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성경 주해서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될 것이다. 암브로시우스는 포도주가 가진 여러 의미를 성경 구절에 나타난 포도주를 근거로 전개해 나갔으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

23) 정환규, 「포도주를 통해 바라본 암브로시우스의 음주론: 사회교리 저서를 중심으로」, 11 이곳의 도표에서는 77회로 되어 있으나, 78회의 오기이다.

24) 당시 음주 문화를 자세히 소개하며 일상의 포도주를 많이 언급한 『엘리아와 단식』은 이런 차이를 벌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교 사회의 포도주에 관한 생각을 정립했다고 볼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암브로시우스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오늘날 성경 구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암브로시우스가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 뿐 아니라 다양한 판본의 성경을 다루었기 때문이며,²⁵⁾ 이런 암브로시우스의 성경 인용은 옛 불가타 사본을 추정하는 데에도 유용하다.²⁶⁾

2. 추도사와²⁷⁾ 포도주

암브로시우스가 작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추도사는 총 3편이다. 이 추도사들은 암브로시우스가 얼마나 감성이 풍부한 시목자였는지 증명해 주는데,²⁸⁾ 이 가운데 ‘포도주’가 쓰이는 곳은 『형 사티루스의 죽음 (De excessu fratris Satyri)』 (378년), 『발렌티니아누스의 죽음 (De obitu Valentiniani)』 (392년) 두 작품이며, 『테오도시우스의 죽음 (De obitu Theodosii)』 (395년)에는 포도주가 등장하지 않는다.²⁹⁾

2.1. 『형 사티루스의 죽음』

암브로시우스에게는 누이 마르첼리나(Marcellina)와, 형 우라니우스 사티루스(Uranus Satyrus)가 있었다.³⁰⁾ 사티루스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동생 암브로시우스의 업무에도 많은

25) Boniface Ramsey O.P., *Ambrose*, (New York: Routledge, 1997), 69-70.

26) 에리히 쉐어 등, 『구약성경개론』, 이종환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5), 101-102. 물론 암브로시우스는 성경뿐 아니라 여러 고대 저술가의 작품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것은 본 연구 주제와는 다른 영역의 이야기이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27) 학자에 따라 ‘애도사로 부르기도 한다. 장인산, 「뿔 암브로시오(Ambrosius) 教父의 생애와 저서, 가르침과 영향」, 196-197. 여기서는 ‘추도사’로 통일한다.

28) 크리스토프 마르키시에스, 「암브로시우스」, 『교부학사전』, 642.

29) 작품의 한글명 및 저술 연도는 최원오의 기준을 따랐다. 암브로시오, 『토빗이야기』, 교부문헌총서 24, 최원오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6), 215-218. 각주에서 원문을 추가할 때에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형 사티루스의 죽음』, 『발렌티니아누스의 죽음』으로 축약해서 사용하며, 각 작품의 라틴어 판본에 대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형 사티루스의 죽음』, 『발렌티니아누스의 죽음』: Sant’Ambrogio, *Le orazioni funebri*, in *Opera omnia di Sant’Ambrogio - opere discorsi e lettere I*, ed. Gabriele Banterle et al., (Roma: Città Nuova Editrice, 1985).

30) Saint Ambrose, *Letters in The fathers of the Church* 26, trans. Sister Mary Melchior Beyenka, O.P.,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87), 5.

도움을 주었는데, 376/377년 집안일로 아프리카에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배의 파선으로 큰 위기를 겪었다가 극적으로 구출되어 돌아온 일이 있었으며, 그 후에 세례를 받고 378년 밀라노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암브로시우스는 『형 사티루스의 죽음』을 작성하여 죽은 형을 추도하였다. 이 작품은 크게 형에 대한 실제 추도사와 부활에 관한 담론 두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자는 장례식 직전 대성당 안에 안치된 형의 주검 앞에서 읽은 추도사, 후자는 7일 후 무덤 앞에서 행한 강론으로 전해진다.³¹⁾

포도주는 『형 사티루스의 죽음』 가운데 후반부 강론 영역에서 단 한 번 쓰였다.³²⁾ 이 포도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언급된 구절 앞에 제시된 문장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³³⁾ 아가 4,16-5,1과 연관된³⁴⁾ 이 문장에서 말하는 화자, 사람을 초대하는 주체는 바로 ‘교회(Ecclesia)’이다.³⁵⁾ 그리고 이 문장 이후 이처럼 교회의 초대를 받은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는 구절에서 포도주가 등장한다. 포도주가 속한 이 구절이 성경의 직접 인용은 아니다. 하지만 이 배경에는 아가서의 구절,³⁶⁾ 오늘날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리리다’라고³⁷⁾ 번역되는 아가 1,4의 성경 구절이 작용하고 있고,³⁸⁾ 여기서 사용되는 포도주는 육체적이면서 세속적인 기쁨을 대표하는 물건으로, 세상의 여러 물건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되었다는 면에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

31) 장인산, 『聖 암브로시오(Ambrosius) 敎父의 생애와 저서, 가르침과 영향』, 196.; Sant’Ambrogio, *Le orazioni funebri*, 9.

32) 『형 사티루스의 죽음』 2,118: *Sciens enim iam tunc etiam horum tibi forte opera fructuosa, Christo tuo fructum de talibus pollicebare, quae primo te in cubiculum dixisti regis inductam diligens «ubera super uinum», cum diligentem amares, latentem quaereres, pericula pro religione contemneres.*

33) 『형 사티루스의 죽음』 2,118*: *Ecclesiae quoque uocem inuitantis agnosce; dicit enim: Exsurge, aquilo, et ueni, auster, perfla hortum meum et defluant unguenta mea. Descendat frater meus ad hortum suum et edat fructum pomiferarum suarum.*

34) Sant’Ambrogio, *Le orazioni funebri*, 148 cit.118a.

35) 이렇게 아가서의 구절을 말하는 화자가 교회로 등장하는 것은 『동정』 9,53에서도 나타난다: *Videns, inquam, hoc ecclesia et fidei nostrae iam laeta successu, dicat: Inducite me in domum uini, et ordinate in me caritatem.* Sant’Ambrogio, *Verginità e vedovanza*, in *Opera omnia di Sant’Ambrogio - Opere morali II/II*, ed. Franco Gori et al., (Roma: Città Nuova Editrice, 1989), 48.

36) Sant’Ambrogio, *Le orazioni funebri*, 148 cit.118b.

37) 아가 1,4.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주석성경-구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1852.

38) 여기서는 아가 1,4이 간접적으로 추론되지만, 『이사야 또는 영혼』 3,9과 『시편 제118편 해설』 1,3; 1,4; 1,5A 등에서는 이 구절이 직접 언급된다. 참조: 정한규, 「성 암브로시우스의 창세기 주해서에 나타난 포도주」, 186.; 정한규, 「포도주와 성 암브로시우스의 성경 주해서」, 11. 이 외에도 『동정녀』 2,6,42와 『신앙론』 2,2,32A에도 사용된다.

교 대상이 되는 ‘젖(ubera)’에 비해서는 한없이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이다. 그러므로 포도주는 세속 물질 사이에서 선택된 물품, 가치 있는 물건이기는 하지만, 젖이 표현하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 은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이라는 두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2.2. 『발렌티니아누스의 죽음』

암브로시우스의 『발렌티니아누스의 죽음』에 등장하는 발렌티니아누스는 375년에서 392년까지 황제로 재위했던 발렌티니아누스 2세(Valentinianus II)를 말한다. 발렌티니아누스 가문을 연 아버지 발렌티니아누스 1세(Valentinianus I)에게는 장남인 그라티아누스(Gratianus)와 그 이복동생인 발렌티니아누스 2세가 있었는데, 발렌티니아누스 1세의 사후, 16세의 장남 그라티아누스가 후임 황제가 되었고, 며칠 후 발렌티니아누스 2세가 공동 황제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형 그라티아누스가 383년 8월에, 동생 발렌티니아누스 2세는 392년 5월에 살해되면서 발렌티니아누스 가문은 종말을 고한다.³⁹⁾ 암브로시우스는 이처럼 폭력에 의해 희생된 발렌티니아누스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죽은 이를 위한 탄원과 칭찬의 이야기, 또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한 위로의 말을 담고 있는 작품을 저술했으며,⁴⁰⁾ 포도주는 여기서 총 5번에 걸쳐 사용된다. 앞서 언급된 『형 사티루스의 죽음』에서 포도주가 성경 구절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 이곳에 나타난 포도주는 전부 성경 구절에서 직접 인용된 것이다.

첫 두 번의 포도주는 발렌티니아누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교회 역시도 눈물을 흘리며 애도하고 있음을 전하는 내용에서 쓰인다. 첫 인용은 아가서 구절로⁴¹⁾ 『형 사티루스의 죽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말하는 주체는 교회이며,⁴²⁾ 죽은 발렌티니아누스에게 의인화된 교회가 직접 성경 구절을 말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교회가 전해주는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는 시편의 직접 인용구가 사용되면서,⁴³⁾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음료

39) 크리스 스카레, 『로마황제』, 윤미경 옮김, (서울: 갑인공방, 2004), 256. 그라티아누스와 발렌티니아누스 2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참조. 에드워드 기번, 『로마제국 쇠망사 3』, 5-6 & 52. 이후 ‘발렌티니아누스’는 ‘발렌티아누스 2세’를 뜻한다.

40) 장인산, 『聖 암브로시오(Ambrosius) 敎父의 생애와 저서, 가르침과 영향』, 197.

41) Sant'Ambrogio, *Le orazioni funebri*, 166 cit.8b.

42) 『발렌티니아누스의 죽음』 7*: *Plorat ecclesia in sapientibus suis, qui sunt uelut caput ecclesiae*;.....

43) Sant'Ambrogio, *Le orazioni funebri*, 168 cit.8d.

로 설명된다.⁴⁴⁾ 따라서 여기서 사용된 포도주는 표면상 일상에서 마시는 음료처럼 표현되었지만, 대장사가 이미 사망한 발렌티니아누스인 만큼 현세에서의 음료가 아닌 천상의 음료, 즉 천상에서 누릴 기쁨과 은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 나타난 두 번의 포도주 역시 성경 구절의 직접 인용인데, 잠언 9,2과 9,5을 배경으로 한다.⁴⁵⁾ 이 구절은 암브로시우스가 여러 저서에서 즐겨 사용하였던 내용인데,⁴⁶⁾ 여기서는 전후에 나오는 다른 성경 인용구들과 함께 발렌티니아누스의 신체 부위에 적용되면서, 그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드러낸다. 포도주는 특별히 그의 배꼽과 배를 설명할 때 등장하며,⁴⁷⁾ 이것은 지혜가 만들고 전해주는 것으로, 앞의 포도주와 마찬가지로 지혜가 내려주는 은총을 상징한다.⁴⁸⁾

『발렌티니아누스의 죽음』의 마지막 포도주 역시 성경 구절의 직접 인용으로 아가 8,2의 내용이며,⁴⁹⁾ 형 그라티아누스의 입을 통해⁵⁰⁾ 언급된다.⁵¹⁾ 위에서 간략히 언급된 바와 같이 그라티아누스는 시간상 발렌티니아누스가 살해되기 전에 이미 죽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입을 통해 언급되는 포도주 역시 현실의 음료가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보상이자 은총이 된다.

44) 『발렌티니아누스의 죽음』 8AB: *Potum tibi dabo a uino operosi unguenti, hoc est multi operis, multi odoris unguento, a fluxu malorum granatorum meorum, ut bibat uinum, quod laetificat cor hominis, et defluat in eum malorum granatorum fluxus, in quibus multus et diuersus est fructus.*

45) Sant'Ambrogio, *Le orazioni funebri*, 202 cit.69a.

46) 잠언 9,2의 경우 『신앙론』 1,15,98과 이후에 언급될 『서간집』 1,2,9(각주 70)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잠언 9,5의 경우에는 『낙원』 3,14; 『카인과 아벨』 1,5,19A; 『세상 도피』 8,51B; 『투카 복음 해설』 6,63에서 볼 수 있다. 정환규, 「성 암브로시우스의 창세기 주해서에 나타난 포도주」, 177 & 179-180; 정환규, 「포도주와 성 암브로시우스의 성경 주해서」, 4 & 19. 더불어 『동정』 10,55과 이후에 언급될 『서간집』 7,40,5(각주 104)에서도 사용된다.

47) 『발렌티니아누스의 죽음』 69*: *Ergo umbilicus iste tornatus omni decore uirtutum non deficit mixto. Venter quoque eius non solum iustitiae uelut frumentario cibo replebatur, sed etiam gratiae suauitate, quae florebat ut lilium.*

48) 『발렌티니아누스의 죽음』 69AB: *Sapientia enim in cratere miscuit uinum suum dicens: Venite, edite panes meos et bibite uinum, quod miscui uobis.*

49) 포도주가 들어 있는 구절은 아가 8,2이나, 원문에는 폭넓게 아가 7,13-8,3이 인용되어 있다. Sant'Ambrogio, *Le orazioni funebri*, 204 cit.74a.

50) Ibid., 16. 이것은 『발렌티니아누스의 죽음』 71에서 명확히 언급된다. *Huic ascendenti animae Gratianus frater occurrit et complexus eam dicit:*

51) 『발렌티니아누스의 죽음』 74: *Potum dabo tibi a uino operosi unguenti, a fluxu malorum granatorum meorum.*

두 편의 추도사에서 사용된 포도주의 사용 횟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성경 직접 인용	일반적 사용	총횟수
『형 사티루스의 죽음』	0	1	1
『발렌티니아누스의 죽음』	5	0	5
계	5	1	6

3. 서간과⁵²⁾ 포도주

암브로시우스의 편지들은 일찍부터 모음집 형태로 전해져 왔는데,⁵³⁾ 오늘날 『서간집 (Epistulae)』 (연대 미상)과 『추가 서간집 (Epistulae extra collectionem traditae)』 (연대 미상) 두 권으로 구성되고 있으며,⁵⁴⁾ 포도주는 이러한 편지 사이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사용된다.

편지는 보통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암브로시우스의 편지는 이런 생

52) 암브로시우스의 일부 저서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번역되어 있다. 하지만 서간의 경우 전체 번역은 접할 수 없고, 일부만 필요에 따라 번역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상훈과 이은혜가 공동 작업을 통해 기독교 고전 총서에서 10편의 서간을 번역한 것이 있으며, 2022년 조승준이 테오도시우스 황제에게 보낸 암브로시우스의 서한 5편을 번역하여 소개한 바가 있다. 참조. 암브로시우스 등, 『초기 라틴 신학』, 기독교 고전총서 4, 이상훈-이은혜 옮김,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1), 222-334.; 암브로시우스, 「테오도시우스 황제에게 보낸 서한」, 조승준 옮김, 『神學展望』, 217(2022/여름), 146-178.

53) 각주 29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한글 명칭과 저술 연도는 최원오의 기준을 따랐다. 그러나 『추가 서간집』은 그의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관계로 뜻에 맞게 번역하였다. 추정 연도 역시 각 서간에 따라 달라지기에 『서간집』처럼 연대 미상으로 기록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라틴어 판본에 대한 서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각주에서 원문을 추가할 때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서간집』, 『추가 서간집』으로 축약해서 사용한다.

- 『서간집』 (I-XXXV) : Sant'Ambrogio, *Lettere (1-35)* in *Opera omnia di Sant'Ambrogio - opere discorsi e lettere II/I*, ed. Gabriele Banterle et al., (Roma: Città Nuova Editrice, 1988).

- 『서간집』 (XXXVI-LXIX) : Sant'Ambrogio, *Lettere (36-69)* in *Opera omnia di Sant'Ambrogio - opere discorsi e lettere II/II*, ed. Gabriele Banterle et al., (Roma: Città Nuova Editrice, 1988).

- 『서간집』 (XXXVI-LXIX), 『추가 서간집』 : Sant'Ambrogio, *Lettere (70-77), lettere fuori collezione, avvenimenti del Concilio di Aquileia*, in *Opera omnia di Sant'Ambrogio - opere discorsi e lettere II/III*, ed. Gabriele Banterle et al., (Roma: Città Nuova Editrice, 1988).

54) 『추가 서간집』은 4개의 필사본에서 유래된 암브로시우스의 공식적 편지 모음집이다. 이 편지들은 편집자에 따라 일부가 『서간집』에 포함되기도 했고, 이후에 별도로 추가되기도 했다. Sant'Ambrogio, *Lettere (70-77)*, 12-14. 본고에서 사용하는 『암브로시우스 전집』에서는 이러한 편지들을 따로 모아 『추가 서간집』으로 편성하였다.

각을 벗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치 또는 종교적인 문제로 황제에게 보낸 편지라던가, 교황, 주교,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들은 단순한 사적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때에 따라서는 사적인 면과 공적인 면을 넘나들곤 한다.⁵⁵⁾ 또한 어떤 경우에는 성경 구절에 대한 상세한 주석을 담고 있기에, 이런 경우 성경 주해의 성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1. 『서간집』

『서간집』에 수록된 첫 편지는 리옹(Lyon: lat. Lugdunum)의⁵⁶⁾ 주교 성 유스투스(Iustus)에게⁵⁷⁾ 보낸 편지이며,⁵⁸⁾ 포도주는 이 속에서 3회에 걸쳐 사용된다. 첫 두 번은 포도주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포도주를 측정하는 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성경 구절과 직접 연결된다. 전자는 탈출 16,16,⁵⁹⁾ 후자는 시편 104,15의 직접 인용인데,⁶⁰⁾ 둘 다 포도주를 측량하는 기구 또는 그 양을 뜻하는 ‘고모르(Gomor)’에 대한 설명이다.⁶¹⁾ 하지만 암브로시우스에게 이것은 단순한 계량기가 아니라 지혜를 측량하는 기구이며,⁶²⁾ 따라서 여기서 나타난 포도주는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지혜의 음료를 뜻한다.⁶³⁾ 이어 암브로시우스는 이러한 포도주의 개념을, 잠언의 구절을 연결하여 다시 설명하면서, 이 포

55) Sant’Ambrogio, *Lettere* (1-35), 9-10.

56) Caroli Egger, *Lexicon nominum locorum*, 181.

57) Sant’Ambrogio, *Lettere* (1-35), 23 cit.1. 아퀼레이아 공의회(Aquileiense Concilium)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유스투스는 리옹의 주교였으며 가톨릭 교회는 그를 9월 2일에 공경한다. _____, *Martyrologium Romanum*,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4), 491.

58) 이 편지에 대해서, 『서간집』을 구성할 때 작성된 허구의 편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 Sant’Ambrogio, *Cronologia Ambrosiana, Bibliografia Ambrosiana*, in *Opera omnia di Sant’Ambrogio - sussici*, ed. Giuseppe Visonà et al., (Roma: Città Nuova Editrice, 2004), 67.

59) 『서간집』 1,1,5: *Vnusquisque enim pro numero animarum, qui apud se erat in tabernaculis, collegerunt per singula capita gomor, id est mensuram uini, sicut habet interpretatio*. 비평본에는 레위기로 표현되어 있으나 내용상 탈출기의 오기로 보인다. Sant’Ambrogio, *Lettere* (1-35), 24 cit.5c.

60) 『서간집』 1,1,7A: *Gomor ergo mensura est et mensura uini, quod laetificat cor hominis*. Ibid., 26 cit.7a.

61) 오늘날 성경에서는 ‘오메르’라고 음역하며, 탈출기에만 등장하고 시편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도량 단위인 ‘에파’의 1/10에 해당하는 양으로, 대략 4리터로 추정된다.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주석성경-구약』, 222 & 1642.;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주석성경-신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1045.

62) 『서간집』 1,1,6*: *Est autem mensura sapientiae:*

63) 『서간집』 1,1,7*: *Qui autem nisi sapientiae potus iucunditas cordis est?*

도주가 일상의 음료가 아닌 지혜가 주는 음료임을 명확하게 확증한다.⁶⁴⁾

암브로시우스가 자신의 후계자로 밀라노의 주교가 되는 성 심플리치아누스(Simplicianus)에게⁶⁵⁾ 보내는 편지에서도⁶⁶⁾ 포도주는 등장한다. 『서간집』에 2번째로 수록된 이 편지에서 암브로시우스는,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던 모세가 번제물로 올린 소의 피 절반을 여러 대접에 담아 두고 나머지 절반을 제단에 뿌린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⁶⁷⁾ 암브로시우스는 모세의 이 행동을 덕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으로 바라보는데,⁶⁸⁾ 포도주는 이 과정 중에 잠언 9,12의 직접 인용으로 등장하며,⁶⁹⁾ 모세가 피를 여러 대접에 담은 행위와 연결된다. 암브로시우스의 관점에서 모세에 의해 사용된 피는, 잠언에서 지혜가 부여하는 포도주이며,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피를 의미한다.⁷⁰⁾ 따라서 여기서 포도주는 『발렌티아누스의 죽음』에서 이 잠언 구절이 쓰인 방식과 같이⁷¹⁾ 여전히 현실의 포도주가 아닌 상징적 의미로 해석된다.

암브로시우스는 이 외에도 심플리치아누스에게 여러 편지 편지를 보냈는데,⁷²⁾ 『서간집』의 3번째 편지 역시 심플리치아누스를 위해 작성된 것이고, 여기에서도 포도주가 사용된다. 암브로시우스는 이 편지에서 기름과 포도주가 나쁜 냄새가 나는 그릇에 담겼을 경우, 쉽게 부패하는 사실을 언급한다.⁷³⁾ 이 이야기는 얼핏 세상에서 통용되는 자연현상

64) 『서간집』 1,1,7B: Hoc est illud **uinum**, quod «miscuit in cratere sapientia et offert bibendum, ut sumamus nobis sobrietatem et prudentiam», quod ea aequalitate transfundi oportet sensibus et cogitationibus nostris et omnibus motibus, qui intra hanc nostram sunt domum, ut sciamus posse abundare omnibus, deficere nulli.

65) Sant' Ambrogio, *Lettere* (1-35), 37 cit.1. 가톨릭교회에서 8월 15일에 기념하는 심플리치아누스 주교는, 암브로시우스가 그의 인품과 성덕을 찬양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지며, 암브로시우스의 사후 397년 그의 후계자로서 밀라노 교구 주교가 되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칭송했던 인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개종에 큰 영향을 끼쳤다. _____, *Martyrologium Romanum*, 454.; 최정오 편저, 『심플리치아노, 주교』, 『가톨릭 성인 사전』, (서울: 계성출판사, 1991), 484-485.

66) 내용상 성경 주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Sant' Ambrogio, *Cronologia Ambrosiana, Bibliografia Ambrosiana*, 67.

67) 탈출 24,6의 구절이다. Sant' Ambrogio, *Lettere* (1-35), 36 cit.1a.

68) 『서간집』 1,1,7*: Virtutes quoque distinguit et diuidit, cuius minister Moyses diuisione sanguinis uirtutum genera distinxit.

69) Sant' Ambrogio, *Lettere* (1-35), 40 cit.9a.

70) 『서간집』 1,2,9: Itaque siue ita haec accipias, pius, ut arbitror, sensus est, siue secundum Solomonem uelis, concurrit aequae, ut quia sanguinem misit in crateras Moyses propheta, cognoscas ipsum esse sanguinem, de quo scriptum est quia *sapientia miscuit in cratera uinum suum, dicens ut «relinquerent insipientiam et quaerent sapientiam».*

71) 각주 48의 『발렌티아누스의 죽음』 69A를 참조하라.

72) 『서간집』에는 4개의 편지(2, 3, 7, 10)가 심플리치아누스를 수신자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 Sant' Ambrogio, *Lettere* (1-35), 369.; Sant' Ambrogio, *Cronologia Ambrosiana, Bibliografia Ambrosiana*, 67-68.

을 기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속죄 제물에 대한 특별 규정 이후 언급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⁷⁴⁾ 이들이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살라버린 것에 대해, 모세의 경우 법을 어겼다고 책망한 것이고, 아론의 경우는 잘못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란 것이다.⁷⁵⁾ 곧 냄새나는 그릇과 거기에 담긴 포도주는, 비록 어떤 이가 속죄를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속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된 포도주는 표면적으로는 세속에서 사용되는 음료이지만 속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작용한다.

이후 포도주가 등장하는 것은 『서간집』의 13번째 편지로,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의 사제로 추정되는 이레네우스(Irenaeus)에게⁷⁶⁾ 보낸 것이다.⁷⁷⁾ 이 편지는,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을 믿은 이들과 보다 이후에 하느님을 믿게 된 이들에게 하느님 사랑의 차이가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며,⁷⁸⁾ 여기서 사용된 포도주는 시편 구절의 이야기처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천상의 양식(caelestis alimenti)’과 함께 언급된다.⁷⁹⁾ 이 경우 포도주와 양식을 이용하는 주체는 기쁨과 환희를 지닌 영혼(anima)이기 때문에⁸⁰⁾ 포도주는 천상에서 전해지는 은총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주체로 영혼이 연결되는 것은, 『서간집』 18번째 편지에서도 이어진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오르티아누스(Orontianus)로, 그는 밀라노 교구 소속 사제

73) 『서간집』 1,3,6: Vase enim factido uel oleum uel **uinum** facile corrumpitur ac deterioratur.

74) Sant’Ambrogio, *Lettere* (1-35), 46 cit.6a,b,c. 여기서 cit.6b는 루카 복음서로 제시하지만, 레위기의 오기로 보인다.

75) 『서간집』 1,3,6* : Dicit Moyses deuorandum fuisse paenitentiam in sanctis sanctorum, sacerdotes quasi segiores increpat. Respondit Aaron prouidum debere esse iudicium sacerdotale, nec facile malesanae conscientiae committendum id muneris, ne fiat deterior error priore.

76) Sant’Ambrogio, *Lettere* (1-35), 51 cit.1.

77) 『서간집』에는 암브로시우스가 이레네우스에게 보낸 13편의 편지(4, 6, 11, 12, 13, 14, 15, 16, 40, 54, 63, 64, 68)가 수록되어 있다. Sant’Ambrogio, *Cronologia Ambrosiana, Bibliografia Ambrosiana*, 67-77.

78) 『서간집』 4,13,1*: Differentia caritatis utrum sit aliqua apud deum eorum qui a pueritia crediderint et eorum qui iuuentutis aut posterioris aetatis processu, prudenter requirendum putati.

79) 『서간집』 4,13,3: Et ideo non ieunabat, quia dies erant epularum et refectionis, cum adesset sponsus, inuehens, quibus aderat, ubertatis affluentia caelestis alimenti copias, **uini** rigatus, quo «corda hominum laetificantur».

80) 『서간집』 4,13,3* : Ergo et haec anima habebat ante laetitiam et exultationem, cum haberet «parthenicon logon».

는 아니었지만, 암브로시우스에 의해서 서품받고 영적 관계를 유지해 왔던 인물로 여겨진다.⁸¹⁾ 암브로시우스는 오론티아누스에게도 여러 편의 편지를 작성해 보냈는데,⁸²⁾ 이 18번 편지에서 포도주는 미카 6,15의 변형으로⁸³⁾ 등장한다. 이른바 ‘즐거움의 포도주(*uinum iucunditatis*)’로 사용되는 이 포도주는 ‘기쁨의 기름(*unctionem laetitiae*)’과 쌍을 이룬다. 하지만 미카 예언서의 구절과 마찬가지로, 문장 전체에서는 이러한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⁸⁴⁾ 이로써 포도주는, 예언서에서와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물질적 포도주, 음료로서의 차원을 뛰어넘어 상징적 차원으로 나아간다.

마르첼루스(Marcellus) 주교와 그의 형제자매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24번 편지에서도⁸⁵⁾ 포도주가 사용되었다. 암브로시우스는, 마르첼루스의 형제인 레투스(Laetus)가 땅을 소유하되, 대신 매해 일정량의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자매에게 지급하게 한 것에 흡족해하면서,⁸⁶⁾ 이런 과정 중에 마르첼루스 주교가 가장 훌륭한 일을 한 것이라 칭찬한다. 왜냐하면 그가 형제에게는 재산권을, 자매에게는 수확물의 이익을 줌으로써, 둘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이다.⁸⁷⁾ 그렇기에 여기의 포도주는 어떤 가치 판단이나 상징적 의미 없이, 명확히 생산품의 한 종류로 곡식과 기름과 더불어 재산의 한 품목으로만 취급된다.

실제 현실 속 포도주는 29번 편지에서도 그대로 사용된다. 앞서 언급된 오론티아누스

81) Sant'Ambrogio, *Lettere* (1-35), 179 cit.1.

82) 오론티아누스를 수신자로 하는 편지는 『서간집』에 총 9편(18, 19, 20, 21, 22, 23, 29, 31, 66)이 전해진다. Sant'Ambrogio, *Cronologia Ambrosiana, Bibliografia Ambrosiana*, 67-77.

83) Sant'Ambrogio, *Lettere* (1-35), 192 cit.20b.

84) 『서간집』 5,18,20: *Audiens haec anima quia seminum suorum fructus non colliget, nullum messe amissa firmamentum inueniet sui, premet oliuam et «unctionem laetitiae» non habebit neque bibet uinum iucunditatis cognoscens etiam in operibus carnis omnia plena «sanguinis», plena circumscriptionis, fraudum fallaciae, ficta officia pietatis, conpositas simulationes et inimicos sibi omnes qui in domo sunt, ideoque proximi sibi corporis motus cauendos, qui sunt graues animae nostrae aduersarii, conuertitur et de deo sperare incipit et intellegens uere inimicam sibi carnem existere ait ad eam: Noli supergaudere mihi, inimica mea, quia cecidi! Sed resurgam, quia, si sedero in tenebris, dominus inluminabit me.*

85) Sant'Ambrogio, *Lettere* (1-35), 237 cit.1.

86) 『서간집』 5,24,8: *Itaque omnium conspirante adsensu placuit, ut Laetus, uir consularis, agrum susciperet et certum numerum frumenti uini olei sorori quotannis pensitaret.*

87) 『서간집』 5,24,9*: *Nemo tamen plenius, nemo gloriosius quam tu uicisti, qui dum erga sororem confirmari uis liberalitatem tuam, in utrumque eam fraternae consortem necessitudinis contulisti; nam et fratri concessisti proprietatem et sorori usus fructum.*

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암브로시우스는,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지상에서 육과 피를 거스르는 여러 투쟁이 있음을 말하고, 그 내용을 나열한다. 이때 포도주도 이러한 투쟁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한다. 암브로시우스는 포도주를 의인조차 취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군대를 파멸시킨 물건으로 소개한다.⁸⁸⁾ 여기서 언급되는 ‘의인(iustus)’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를 의미하며,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잠들었던 창세기 9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⁸⁹⁾ 그리고 유대인들의 군대가 파멸된 이야기는 탈출기 32장에서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놀았던 이야기와 연결된다.⁹⁰⁾ 따라서 이 포도주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음료로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지만, 암브로시우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포도주 남용의 위험성을 함께 밝힌다.

오른티아누스에게 보내는 다른 편지인 31번 편지 속에서도 포도주가 등장한다. 이 편지에서 암브로시우스는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숫자 7과 8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처럼 숫자가 지닌 상징을 찾고 추구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이어온 풍습이다. 하지만 암브로시우스는 자신이 피타고라스와 같은 다른 철학자들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은총의(*gratiae spiritalis*) 개념과 구분에 따라 생각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면서,⁹¹⁾ 이에 따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를 기초로 숫자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포도주는 여기서 숫자 7과 8의 합인 15에 대해 언급하는 도중에 사용된다.⁹²⁾ 이것은 호세아서의 이야기와 관련된 것으로서,⁹³⁾ 호세아 예언자가 집을 나간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88) 『서간집』 6,29,6: *Sed non solum aduersus nequitiae spiritalia quae sunt in caelestibus, sed etiam aduersum carnem et sanguinem lucta nobis, lucta aduersus satietatem, lucta cum ipsis frugibus terrae, lucta cum uino, quo etiam iustus inebriatus est, quo etiam integer Iudaeorum exercitus subplantatus est, lucta cum feris bestiis, lucta cum uolatilibus caeli, quibus caro saginata non redigitur in seruitutem, lucta cum periculis itinerum, periculis fluminum, ut ait Paulus, lucta cum uirgultis arborum, quibus caedebantur apostoli.*

89) Sant’Ambrogio, *Lettere* (1-35), 274 cit.6b. 암브로시우스는 『노아』 29,111과 『아브라함』 1,6,56-58에서 노아의 만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언급한다. 참조 정환규, 「성 암브로시우스의 창세기 주해에서 나타난 포도주」, 182-185.

90) Sant’Ambrogio, *Lettere* (1-35), 274 cit.6c.

91) 『서간집』 6,31,3*: *Bonus septimus numerus, quem non Pythagorico et ceterorum philosophorum more tractamus, sed secundum formam et diuisiones gratiae spiritalis.*

92) 『서간집』 6,31,7: *Sic enim habes: Et abii et condux i mihi quindecim argenteis et coro hordei et semicoro hordei et neu el uini.*

93) Sant’Ambrogio, *Lettere* (1-35), 302. cit.7b.

호세 3장의 내용이다. 이때 포도주는 아내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치르는 물품 가운데 하나이기에, 현실에서 사고파는 세속 물건으로서의 위치만 차지한다.⁹⁴⁾

하지만 이러한 세속의 포도주는 절제되지 않을 경우,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피아첸자(Piacenza: lat. Placentina)의⁹⁵⁾ 성 사비누스(Sabinus)에게⁹⁶⁾ 보내는 34번 편지에서 암브로시우스는 절제하지 못하고 폭식하는 이들에 대해 언급하는데,⁹⁷⁾ 구체적인 예로 포도주가 사용된다.⁹⁸⁾ 암브로시우스는 ‘쾌락(delectatio)’에 대해 설명하면서, ‘만취(ebrietas)’와 ‘채함(cruditas)’이라는 두 추상 명사 앞에 포도주를 이용한다. 이로써 암브로시우스는 포도주가 이 두 불편한 상황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할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맞닥트렸던 것을 가감 없이 언급한다. 따라서 이 포도주는 여러 식품과 음료 중에 나름대로 선택된 유일한 물질 명사라는 점에서는 가치를 가질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부정적인 의미를 피할 수 없다.

암브로시우스의 38번 편지는 친구인 에우세비우스(Eusebius)에게 보내는 것으로⁹⁹⁾ 여기서 포도주는 노아의 이야기와 함께 등장한다. 암브로시우스가 노아에 대해 언급할 때는 보통 실제 포도주에 취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¹⁰⁰⁾ 이 편지에서 언급된 노아 역시 다르지 않아서, 시편 구절의 직접 인용을 통해 포도주에 취한 것이 언급된다. 하지만 이 편지에서 암브로시우스는 이러한 실제적 의미에서 취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사람

94) 여기서 암브로시우스가 사용한 포도주 한 ‘네벨(neuel)’은 오직 70인역에서만 나오는 표현이다. Ibid., 303 cit.17. 오늘날 성경에서 이 부분은 포도주에 대한 언급 없이 그저 ‘은 열다섯 세겔, 그리고 보리 한 호메르와 한 레택’으로 기록되어 있다. 호메르는 약 400리터, 레택은 약 200리터에 해당하는 낱말인데, 이 ‘레택’은 구약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등장한다.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주석성경-구약』, 2652.;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주석성경-신약』, 1045.

95) Luigi Castiglioni e Scevola Mariotti, 『Piacenza』, *Vocabolario della Lingua Latina*, (Milano: Loescher editore, 1996), 1854.

96) 사비누스는 피아첸자의 주교로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12월 11일에 그를 기념하고 있다. 암브로시우스의 저서를 비평하는 글을 써 보낼 정도로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인물로, 381년 아퀼레이아 공의회에도 함께 참석하여 아리우스파를 단죄하는데 기여하였다. Sant’Ambrogio, *Lettere* (1-35), 253 cit.1.; —, *Martyrologium Romanum*, 667.; 최정오 편저, 『사비노, 피아첸자의 주교』, 『가톨릭 성인 사전』, 440.

97) 『서간집』 6,34,10*: Venenum in dentibus habet, quibus unusquisque se euiscerat luxuriosus, helluo intermecat, abligurritor perimit.

98) 『서간집』 6,34,10: Quantos ruperunt uina, dissoluit ebrietas, distendit cruditas!

99) 학자에 따라 베르첼리(Vercelli)의 주교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다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Sant’Ambrogio, *Lettere* (1-35), 251 cit.1.; Sant’Ambrogio, *Lettere* (36-69), 45 cit.1.

100) 각주 88에서 언급된 『서간집』 6,29,6의 내용을 참조하라.

과 은총의 잔으로 취한 이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가졌던 휴식, 그런 평온함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¹⁰¹⁾ 그러므로 이때 포도주는 문맥상 노아의 이야기에서 언급된 포도주,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실제 포도주임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취하는 것과 대비되어 나타남으로 인해, 은총과 사랑을 암시하는 상징성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에 취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 곧 절제가 필요한 것은 두 상황 모두에게 적용된다.

예레 17,11의 주해로 여겨지는 40번 편지에서도¹⁰²⁾ 포도주는 사용된다.¹⁰³⁾ 이미 언급된 사비누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암브로시우스는 예수께서 아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이사야 안에서 말씀하셨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생각을 솔로몬의 잠언 구절까지 확장한다. 포도주는 이때 인용된 잠언 9,5의 구절 속에 등장한다.¹⁰⁴⁾ 이 구절은 암브로시우스가 여러 차례 직접 인용했던 성경 구절로서,¹⁰⁵⁾ 지혜가 건네주는 이 포도주는 이제 예수께서 주시는 은총과 기쁨을 상징하는 도구로 쓰인다.

『서간집』의 56번과 57번 편지는, 암브로시우스가 베로나(Verona)의 주교인 시아그리우스(Syagrius)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가 이렇게 두 편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인치디아(Incidia)라는 동정녀가 서원을 어겼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고발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¹⁰⁶⁾ 특히 57번 편지는 순결에 대한 성찰과 함께 이루어지는데,¹⁰⁷⁾ 여기서 포도주가 사용된다. 암브로시우스는 판관기 19장에서 21장에 걸쳐 나오는 기브아인들의 만행에 관한

101) 『서간집』 7,38,2: Sed uide, quaeso, ne iste noster Noe agricola, bonus plantator feracis uineae, cum fuerit amoris et gratiae tuae inebriatus poculo, tamquam *crapulatus a uino*, diutius quieti indulgeat; ac si torte indormierit, excitet eum Sem nostri desiderium.

102) Sant' Ambrogio, *Lettere* (36-69), 10.

103) 이 편지는 자고새에 대한 주해이기도 하다.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당시 사람들은 자고새가 자기 알뿐 아니라 다른 동료의 알도 훔쳐서 품는 새라는 부정적 인상을 가졌다. 염명수 편지, 「자고새류(Caccabis chukar)」, 『성서 동물연구』,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1), 135-136. 예레 17,11의 자고새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참조. 에드워드 R. 호프, 「자고새(partridge)」, 『성서 속의 동물들』, 채은하 등 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8), 185-187. 자고새는 이 편지에서 사탄에게 적용되며, 예수님께서 이런 자고새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104) 『서간집』 7,40,5: Clamauit in Salomone conuocans cum altissima praedicatione sapientia: *Venite, edite de meis panibus et bibite uinum quod miscui uobis*. 여기에는 주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서간집』 7,40,4에 명확히 주어가 예수님으로 언급된다: At uero meus Iesus quasi iudex bonus cum iudicio omnia agit, qui uenit, sicut scriptum est, dicens: *Ego loquor iustitiam et iudicium salutis*.

105) 암브로시우스가 인용했던 잠언 9,5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주 46에서 언급된 것을 참조하라.

106) Sant' Ambrogio, *Lettere* (36-69), 10 & 111 cit.1.

107) Sant' Ambrogio, *Cronologia Ambrosiana, Bibliografia Ambrosiana*, 74.

이야기를 자세히 언급하면서,¹⁰⁸⁾ 하느님께서 정결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런 정결을 지키는 이들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서 어떤 위법행위도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다.¹⁰⁹⁾ 이 속에서 포도주는, 레위인을 환영하며 기쁘게 맞아들인 노인이, 하루의 수고를 잊도록 권했던 음료로 등장한다.¹¹⁰⁾ 그러므로 이때의 포도주는 비극적 이야기 속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손님을 환대하는 긍정적 물품으로 쓰였다.

트렌토(Trento, lat. Tridentum)의¹¹¹⁾ 주교인 성 비질리우스(Vigilius)에게 보낸 62번 편지에서도¹¹²⁾ 포도주가 사용된다. 여기서 암브로시우스는 그리스도인이 이교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구약의 인물 삼손은 이러한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가장 좋은 예로 등장한다.¹¹³⁾ 암브로시우스는 『엘리아와 단식』에서도 포도주와 관련해서 삼손을 예로 들었으며,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얻기 위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포도주를 절제한 것이 이런 위대한 일을 일으켰음을 언급하였다.¹¹⁴⁾ 하지만 이 62번 편지에서 나타나는 포도주는 이런 생각과는 결을 달리한다. 삼손이 위대한 것은 젊은 시기에 이런 위대한 업적과 뛰어난 덕행 때문이지, 그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거나, 나지르인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지냈기 때문이 아니다.¹¹⁵⁾ 따라서

108) 기브라인들의 만행과 얽혀 있는 이 이야기는 『성직자의 의무』 3,19,112-117에서도 자세하게 언급된다. Sant' Ambrogio, *Lettere* (36-69), 127 cit.1. 이 부분은 『성직자의 의무』 안에서 ‘혼인(matrimonium)’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사용되는 부분으로, 암브로시우스는 이 안타까운 역사를 관조하면서, 이들이 이런 추한 범죄를 통해 다른 이의 혼인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혼인에 부당함을 드러냈다고 여긴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 정환규, 「성 암브로시우스의 작품에 나타난 혼인(matrimonium)」, 『인격주의 생명윤리』, 13(2023/1), 14-15.

109) 『서간집』 8,57,19* : Est igitur domino castitatis tuendae uoluntas; quanto magis est defensandae integritatis? Vnde nulla debet uirginibus sacris irrogari iniuria; quae enim non nubunt et qui uxores non ducunt habentur sicut angeli dei in caelo.

110) 『서간집』 8,57,7: Hortabatur ad laetitiam senior et frequentioribus prouocabat poculis, ut uino aboleret curarum obliuia, cum subito circumstunt eos Gabaonitae, iuuenes ad omnem proiectionem libidinem, nihil pensum ac moderatum habentes, quos forma mulieris illexerat et in omnem amentiam praecipitabat.

111) Caroli Egger, *Lexicon nominum locorum*, 316.

112) Sant' Ambrogio, *Lettere* (36-69), 147 cit.1. 비질리우스는 가톨릭 교회에서 6월 26일 공경하는 성인으로, 선교 도중에 돌을 맞고 순교한 것으로 전해진다. _____, *Martyrologium Romanum*, 354.; 최정오 편저, 『비질리오, 트렌트의, 주교, 순교자』, 『가톨릭 성인 사전』, 421-422.

113) 『서간집』 9,62,8* : Ex multis unum proferam et eius commemoratione liqueat quam perniciosum sit alienigenae mulieris adsciuisse copulam.

114) 『엘리아와 단식』 6,17AB. 정환규, 「포도주를 통해 바라본 암브로시우스의 음주론: 사회교리 저서를 중심으로」, 20.

115) 『서간집』 9,62,10: Eoque ingenti admiratione nobis spectandus a principio, non illa quae

이때의 포도주는 일상의 음료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엘리아와 단식』에서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의미의 포도주와는 거리를 두며 또 다른 해석 여지를 남긴다.

3.2. 『추가 서간집』

암브로시우스의 포도주의 사용은 『서간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서간집』에도 간간히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서간집』의 첫 번째 편지는 암브로시우스가 누이인 성 마르첼리나(Marcellina)에게¹¹⁶⁾ 보내는 것으로,¹¹⁷⁾ 루카 복음 7장에서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신 이야기를¹¹⁸⁾ 설명하는 과정 중 쓰인다. 암브로시우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임을 언급하면서, 어떤 이들은 예언자와 같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들은 사도들과 같이 치아 역할을 한다고 전한다. 이때 포도주는, 암브로시우스의 이러한 생각을 확증하기 위한 성경 구절인 창세 49,12의 직접 인용으로¹¹⁹⁾ 등장한다.¹²⁰⁾ 이 성경 구절은 흔히 창세 49,11과 함께 언급되기도 하고¹²¹⁾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¹²²⁾ 과장

temperantiae et sobrietatis iam inde a pueritia uini abstemius praeclara insignia dedit nec illa quae intonso capite nazareus sacra diu seruauit custodia; sed ab adulescentia, quae in aliis aetas mollior, in hoc egregia atque supra humanum modum perfectae uirtutis, stupenda facinora effecit, quibus diuini oraculi mox aperuit fidem, quod non perfunctorie tanta eum anteisset gratia, ut descenderet angelus per quem ortus eius praeter spem parentibus annuntiaretur, futurum regimen et praesidium suis; nam grauibis iamdiu Palaestinorum imperiis afflictabantur.

116) 암브로시우스의 누이인 마르첼리나는, 353년 공현축일에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Basilica Sancti Petri)에서 교황 리베리우스(Liberius)에게 수도복을 받았으며, 매사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처리하였고,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의 주교로 재직할 때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영적 담화를 나누고 사업을 도왔다. 온 밤을 기도하고 영적 독서, 묵상으로 보내어, 암브로시우스조차도 그 과도한 고행을 완화하려 애쓴 것으로 전해진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성인을 7월 17일에 기념한다. _____, *Martyrologium Romanum*, 396.; 최정오 편저, 『마르첼리나, 동정』, 『가톨릭 성인 사전』, 234-235. 『가톨릭 성인 사전』에는 마르첼리나를 암브로시오의 동생으로 표현하나, 내용상 인용의 오기로 보인다.

117) Sant' Ambrogio, *Lettere* (70-77), 171 cit.1.

118) 루카 7,36-49.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주석성경-신약』, 264-265.

119) Sant' Ambrogio, *Lettere* (70-77), 178 cit.11c.

120) 『추가 서간집』 1,11: Omnes unum corpus Christi sumus cui caput deus, membra autem nos sumus, alii fortasse oculi ut prophetae, dentes ut apostoli qui euangelicae praedicationis cibum nostris infundere pectoribus, meritoque scriptum est: *Hilares oculi eius a uino et dentes candidiores lacte*, sunt et manus eius qui uidentur bonorum exsecutores operum, sunt et uenter eius qui uires alimoniae pauperibus largiuntur, sunt ergo et pedes eius aliqui, atque utinam merear eius esse calcaneum! 암브로시우스는 눈에 이어 손, 배, 발도 언급하고서, 자신이 제발 그분의 발 뒤꿈치만이라도 되기를 기원한다.

121) 『아픔과 행복한 삶』 2,9,39AB; 『성조』 4,16AB; 4,24A와 4,25.

122) 『시편 제118편 해설』 16,27; 『루카 복음 해설』 7,231.

법을 사용해서 유다 지파의 땅이 가진 비옥함을 말하고, 여기서 나오는 임금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이다.¹²³⁾ 특히 암브로시우스는 『성조』에서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포도주와 우유를 예언자와 사도들을 지칭하는 눈과 이로 설명하였으며,¹²⁴⁾ 이러한 생각은 편지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포도주는 눈에 해당하는 예언자들과 대비되면서, 예언자들의 위상을 드높이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사용된 포도주도 역시 루카 복음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 중 사용된다. 비록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기름과 함께 등장하여 루카 복음 10장에 언급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¹²⁵⁾

나머지 포도주는 14번 편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 편지는 주교 선출에서 불화가 있었던 베르첼리(Vercelli: lat. Vercellae) 교회에 보낸 것으로 암브로시우스의 마지막 편지로 전해진다.¹²⁶⁾ 장문이면서도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이 편지에서¹²⁷⁾ 4번 포도주가 사용된다. 암브로시우스는 만취하는 것을 죄로 명확히 언급하며,¹²⁸⁾ 육체의 불은 음식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에,¹²⁹⁾ 철저하게 제어되기를 바란다. 암브로시우스는 포도주가 노아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밝히면서¹³⁰⁾ 포도주를 잘 절제할 수 있기를 강력히 청하며, 1티모 5,23의 구절을 직접 인용한다.¹³¹⁾ 이 구절은 포도주에 대한 암브로시우스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로서,¹³²⁾ 배척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23) 주교회의의 성서위원회, 『창세기 - 구약성서 새 번역 7』,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200 각주 16 & 18.

124) 정환규, 「성 암브로시우스의 창세기 주해서에 나타난 포도주」, 189 & 193.

125) 『추가 서간집』 1,19: Et dominus ait quod leuita et sacerdos praeterierunt nec quisquam eorum oleum aut **uinum** illius a latronibus percussi uulneribus infudit; non enim habebant quod infunderent, nam si habuissent oleum suis quoque uulneribus infudissent. Sant' Ambrogio, *Lettere* (70-77), 182 cit.19c. 하지만 암브로시우스는 이후 기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진행한다.

126) Ibid., 263 cit.1.

127) Sant' Ambrogio, *Lettere* (70-77), 13.

128) 『추가 서간집』 14,18*: Bonum ergo sobrietas quia peccatum ebrietas est.

129) 『추가 서간집』 14,26* : Similiter ergo etiam uapor corporis cibo alitur aut minuitur, cibo excitatur, cibo soluitur.

130) 『추가 서간집』 14,27A: **Vinum** post diluuium iustus ad temptationem sui repperit. Vtatur ergo temperantiae naturali cibo utinamque possimus! 포도주의 시작과 관련된 ‘의인(iustus)’은 노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암브로시우스는 『아브라함』 1,6,58B에서 노아를 의인으로 명확히 지칭하며, 그때까지 포도주의 힘이 알려지지 않았기에, 그가 현혹되었다고 언급한다. 정환규, 「성 암브로시우스의 창세기 주해서에 나타난 포도주」, 185.

131) 『추가 서간집』 14,27*, 14,27B: Vtatur ergo temperantiae naturali cibo utinamque possimus! Sed quia non omnes fortes ideo apostolus ait: **Vino modico utere propter frequentes tuas infirmitates.**

132) 이 구절은 『엘리아와 단식』 5,10C; 『노아』 29,111F; 『참회론』 1,14,76D에서도 사용되었다.

무한정 허용해서도 안 되는 포도주에 위상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그것은 쾌락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병을 위해서 이용되어야 한다.¹³³⁾ 이어서 암브로시우스는 탈출기 17장에서¹³⁴⁾ 성조들이 포도주가 아닌 물을 마셨음을 언급하면서,¹³⁵⁾ 이를 통해 자기의 생각을 보충한다. 마지막 포도주 역시 같은 생각 안에서 언급된다. 음식이나 욕구를 절제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¹³⁶⁾ 암브로시우스는 집회서의 구절을 직접 언급하며 자기의 생각을 강조한다.¹³⁷⁾ 따라서 14번 편지에 나온 4번의 포도주는 성경의 직접 인용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다 현실 음료로서의 포도주이며, 그 사용에 있어 절제가 무엇보다 필요한 물건으로서 언급된다.

시간에서 언급된 포도주의 사용 횟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성경 직접 인용	일반적 사용	총횟수
『서간집』	6	9	15
『추가 서간집』	3	3	6
계	9	12	21

나가는 말

암브로시우스의 추도사와 서간집에는 포도주가 각각 6회, 21회로 총 27회 등장한다. 이 가운데 성경을 직접 인용한 경우는 14회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13회이다. 따라서 성경의 직접 인용은 대략 51.85%에 해당한다. 이런 비율은 사회교리 저서의 17.65%, 성경 주해서의 36.30%에 비교해서 큰 우위를 보이는 현상이다.¹³⁸⁾ 보다 구체적인

133) 『추가 서간집』 14,27* : Non ergo propter uoluptatem bibendum est sed propter infirmitatem; pro remedio igitur parcius, non pro deliciis redundantius.

134) Sant’Ambrogio, *Lettere* (70-77), 276 cit.28b.

135) 『추가 서간집』 14,28: Patres nostri cum mare transirent pedibus, aquam non uinum bibebant. 이 이야기와 함께 엘리야가 빵과 물을 마시고 40일간 단식하던 것,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가 언급된다. Ibid., 276 cit.28a,c.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포도주가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136) 『추가 서간집』 14,32* : Sed non illa solum laudabilis quae parca est ciborum temperantia, sed etiam illa quae concupiscentiae.

137) 『추가 서간집』 14,32: Et infra: *Vinum et mulieres apostatare faciunt etiam prudentes.*

으로 살펴보면 추도사에서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총 6회 사용에서 5번이 성경의 직접 인용으로, 무려 83.33%가 해당한다. 반면에 서간집은 총 21회 중 9번인 42.86%가 되어 성경 주해서의 비율에 근접하는 현상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비율이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것은 암브로시우스가 포도주를 언급할 때, 일반적인 상황에는 - 비록 그것이 대중을 상대로 한 강론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 성경을 대략 1/3 정도 직접 인용하였던 반면, 개인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추도사나 편지에 있어서는 보다 성경 구절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갔음을 알 수 있다. 암브로시우스는 주교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성경을 통해 양성된 사람이었으며, 성경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성경을 자신의 영적 묵상서로 삼아, 하느님의 백성에게 건넬 설교의 생수를 길어 올린 분이다.¹³⁹⁾ 상황에 따라 암브로시우스의 추도사와 서간이 공적인 성경을 깊이 가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개인적 성향이 강한 글에서는, 암브로시우스의 성경에 대한 친근감이 더욱 묻어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도사에서 사용된 포도주는 보통 성경 구절들이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발렌티니아누스의 죽음』 8AB, 69AB, 74) 이런 배경에서 포도주는 표면상 마시는 음료의 모습을 띠고 있어도, 포도주를 전해주는 주체가 지혜이고, 받는 대상이 망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죽은 이가 누릴 기쁨, 은총 또는 보상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편지글에서도 이처럼 지혜와 연관되어 사용되는 것은 여러 차례 발견된다. (『서간집』 1,1,5; 1,1,7AB; 1,2,9 등) 이런 경우 포도주는 똑같이 지혜가 주는 축복이자 은총, 기쁨과 같은 상징성을 띤다. 이런 상징성은 속죄를 나타낼 때도 사용될 뿐 아니라 (『서간집』 1,3,6), 천상에서 전해지는 은총을 말할 때나 (『서간집』 4,13,3), 예언자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때도 (『추가 서간집』 1,11) 드러난다.

그러나 포도주가 이런 상징에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사람들이 사고파는 품목이면서 (『서간집』 5,24,8; 6,29,6; 6,31,7 등) 하느님의 사랑에 비교해서는 한없이 하찮은 물건이기는 하지만, 세속의 물건 가운데에서 특별히 선택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도 하다. (『형 사티루스의 죽음』 2,118) 암브로시우스는 포도주

138) 위 1장에서 언급한 포도주의 사용 빈도 참조. 사회교리 저서와 성경 주해서를 통합한 29.09%와도 차이가 있다.

139) 아달베르 함만, 『교부와 만나다』, 이연학·최원오 옮김, (서울: 비아, 2019), 269.

의 이런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벌어진 비극, 곧 포도주를 발명한 노아조차도 유혹에 떨어졌던 사실을 잊지 않는다. (『추가 서간집』 14,27A) 포도주는 만취와 체함의 원인이며, (『서간집』 6,34,10) 성조들이 술이 아닌 물을 마신 것도 이러한 포도주의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추가 서간집』 14,28) 암브로시우스가 인용하기도 했던 (『추가 서간집』 14,32) 집회 19,2의 구절은 포도주에 대한 이런 부정적 입장을 명확하게 대변한다. *술과 여자는 지각있는 이를 타락시킨다*. 하지만 암브로시우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본 것은 아니다. 포도주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음료일 뿐 아니라, (『서간집』 8,57,7) 기름과 함께 약으로서의 가치도 있기 때문이다. (『추가 서간집』 1,19), 암브로시우스는 이처럼 포도주가 지닌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였고, 포도주의 적절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 그가 인용한 1티모 5,23의 구절은 (『추가 서간집』 14,27B) 우리가 포도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그대의 위장이나 잦은 병을 생각하여 포도주도 좀 마시십시오*.

암브로시우스의 서간집과 편지글에 나타난 포도주가 상징의 의미를 지닐 때는 보통 긍정적인 면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실제 포도주에 대한 언급으로 들어갈 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두루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사용이 강조된다. 성경은 어느 쪽에서든 암브로시우스의 생각을 펼쳐나가는데 기초로 작용하였으며,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에 맞춰 자기의 생각을 전개한다. 현실의 포도주는 무엇보다 절제되어 사용되어야 하는 음료이지만, 단순한 음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드러내는 상징적 도구로 인간에게 주어진다.

참고문헌

- 기번, 에드워드(Gibbon, Edward), 『로마제국쇠망사 3』, 손은주-윤수인 옮김, 서울: 민음사, 2009.
- 더들리, 로버트(Dudley, Robert), 『술 취한 원숭이』, 김홍표 옮김, 파주: 궁리출판, 2019.
- 마르크시에스, 크리스토프(Markschies, Christoph), 『교부학사전』, 지그마르 뢰프-빌헬름 게어링스 편, 하성수 외 옮김, 횡성: 한국성도마스연구소, 2021.
- 에드워드 맥거번, 패트릭(Edward McGovern, Patrick), 『술의 세계사』, 김형근 옮김, 파주: 글항아리, 2016).
- 명옥, 『술기로운 세계사』, 서울: 포르체, 2020.
- 성기문, 『기독교 역사 속 술』, 의정부: 시커뮤니케이션, 2021.
- 스카레, 크리스(Scarre, Chris), 『로마황제』, 윤미경 옮김, 서울: 갑인공방, 2004.
- 스탠디지, 톰(Standage, Tom), 『세계사를 바꾼 6가지 음료』, 김정수 옮김, 서울: 캐피털북스, 2020.
- 암브로시오, 『토빗이야기』, 교부문헌총서 24, 최원오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6.
- 암브로시우스 등, 『초기 라틴 신학』, 기독교 고전총서 4, 이상훈-이은혜 옮김,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1.
- 암브로시우스, 『테오도시우스 황제에게 보낸 서한』, 조승준 옮김, 『神學展望』, 217(2022/여름).
- 엄원식, 『히브리 성서와 고대근동문학의 비교연구』, 서울: 한들출판사, 2000.
- 염명수 편저, 『성서 동물연구』,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1.
- 이석인, 『포도에서 와인으로』, 서울: 시대의 창, 2022.
- 임승필, 「성서 안에서의 ‘술’」, 『생활성서』 78(1990.2).
- 장인산, 「聖 암브로시오(Ambrosius) 敎父의 생애와 저서, 가르침과 영향」, 『現代가톨릭思想』, 16(1997,5).
- 장홍, 『와인인문학 산책』, 파주: 글항아리, 2020.
- 전재동, 「술과 성서의 말씀」, 『성서와 함께』 104(1984).
- 정환규, 「성 암브로시우스의 창세기 주해서에 나타난 포도주」, 『인간연구』, 45(2021/겨울).
- _____, 「포도주를 통해 바라본 암브로시우스의 음주론: 사회교리 저서를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47(2021.3).
- _____, 「포도주와 성 암브로시우스의 성경 주해서」, 『서양중세사연구』, 49(2022.3).

- _____, 「성 암브로시우스의 작품에 나타난 혼인(matrimonium)」, 『인격주의 생명윤리』, 13(2023/1).
-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창세기 - 구약성서 새 번역 7』,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 _____, 『성경』,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_____, 『주석성경-구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 _____, 『주석성경-신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 첵어, 에리히(Zenger, Erich) 등, 『구약성경개론』, 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5.
- 최영수, 『포도주의 기원과 전파』, 『와인에 담긴 역사와 문화』, 최영수 외, 고양: 북코리아, 2007.
- 최정오 편저, 『가톨릭 성인 사전』, 서울: 계성출판사, 1991.
- 필립스, 로드(Phillips, Rod), 『알코올의 역사』, 윤철희 옮김, 고양: 연암서가, 2014.
-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8』, 한국교회사연구소, 왜관: 분도출판사, 2001.
- 함만, 아달베르(Hamman, Adalbert), 『교부와 만나다』, 이연학-최원오 옮김, 서울: 비아, 2019.
- 호프, 에드워드 R.(Hope, Edward R.), *Martyrologium Romanum*,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4.
- _____, 『성서 속의 동물들』, 채은하 등 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8.
- Castiglioni, Luigi e Mariotti, Scevola, *Vocabolario della Lingua Latina*, Milano: Loescher editore, 1996.
- Edward McGovern, Patrick, *Ancient Win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 Egger, Caroli, *Lexicon nominum locorum*,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77.
- Mohrmann, Christine et al., *Vite dei sancti*, Borgaro Torinese: Alnoldo Mondadori Editore, 2012.
- Paredi, Angelo, *Sant'Ambrogio e la sua età*, Milano: Jaca Book, 2015.
- Ramsey, Boniface, O.P., *Ambrose*, New York: Routeledge, 1997.
- Raymond, Irving Woodworth, *The Teaching of the Early Church on the Use of Wine and Strong Drink*,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7.

- Saint Ambrose, *Letters in The fathers of the Church* 26, trans. Sister Mary Melchior Beyenka, O.P.,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87.
- Sant'Ambrogio, *Le orazioni funebri*, in *Opera omnia di Sant'Ambrogio - opere discorsi e lettere I*, ed. Gabriele Banterle et al., Roma: Città Nuova Editrice, 1985.
- _____, *Lettere (1-35)*, in *Opera omnia di Sant'Ambrogio - opere discorsi e lettere II/I*, ed. Gabriele Banterle et al., Roma: Città Nuova Editrice, 1988.
- _____, *Lettere (36-69)*, in *Opera omnia di Sant'Ambrogio - opere discorsi e lettere II/II*, ed. Gabriele Banterle et al., Roma: Città Nuova Editrice, 1988.
- _____, *Lettere (70-77), lettere fuori collezione, avvenimenti del Concilio di Aquileia*, in *Opera omnia di Sant'Ambrogio - opere discorsi e lettere II/III*, ed. Gabriele Banterle et al., Roma: Città Nuova Editrice, 1988.
- _____, *Verginità e vedovanza*, in *Opera omnia di Sant'Ambrogio - Opere morali II/II*, ed. Franco Gori et al., Roma: Città Nuova Editrice, 1989.
- _____, *Inni-Iscrizioni frammenti*, in *Opera omnia di Sant'Ambrogio - opere poetiche e frammenti*, ed. Gabriele Banterle et al., Roma: Città Nuova Editrice, 1994.
- _____, *Cronologia Ambrosiana, Bibliografia Ambrosiana*, in *Opera omnia di Sant'Ambrogio - sussici*, ed. Giuseppe Visonà et al., Roma: Città Nuova Editrice, 2004.

성 암브로시우스의 추도사와 편지 속 포도주

정환규

술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톨릭 교회 역사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하지만 그 위치에 비해 교부들이 술을 어떻게 바라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여러 교부 가운데 성 암브로시우스를 선택하고, 그의 저서 중 특별히 추도사와 편지글을 중심으로 포도주의 의미를 파악해 보려 한다.

포도주는 암브로시우스의 추도사 중 『형 사티루스의 죽음』과 『발렌티니아누스의 죽음』에서 6번, 편지 모음집인 『서간집』과 『추가 서간집』에서 21번, 총 27번 사용되었다. 암브로시우스는 여기서 성경을 14번 직접 인용하는데, 이것은 암브로시우스의 성경 주해 서에서 나타난 성경의 직접 인용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암브로시우스가 추도사와 편지글 속에서 성경을 더 자유롭게 인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경 인용을 배경으로, 포도주가 상징적 의미를 지닐 경우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드러내는 긍정적 측면이 잘 드러난다. 하지만 현실의 포도주를 언급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되며, 암브로시우스는 이를 통하여 무엇보다 적절한 포도주의 사용을 강조한다.

주제어: 성 암브로시우스, 포도주, 음주, 추도사, 편지

Wine in the Eulogy and Letters of St. Ambrose

Jung, Hwan-Kyu

Alcohol occupies an important proportion in today's society but also has occupied an important place in the history of the Catholic Church. However, compared to its status,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how the Fathers of the Church viewed alcohol. Focused on this aspect, this paper selects St. Ambrose among the various Fathers of the Church and trie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wine, especially focusing on his eulogy and letters among his writings.

The term 'Wine' was used a total of 27 times, 6 times in *De excessu fratris* and *De obitu Valentiniani* among Ambrosius' eulogies, and 21 times in *Epistulae* and *Epistulae extra collectionem traditae*, collections of letters. Ambrose quotes directly from the Bible 14 times here, which is a much higher quotation rate than the direct quotation rate from the Bible in Ambrose's commentary on the Bible, showing that Ambrose quoted the Bible more freely in his eulogy and letters. With the background of these biblical quotations, the positive aspect of revealing God's grace and blessings is well revealed while wine has a symbolic meaning. However, when referring to wine in reality, not only positive aspects but also negative aspects are considered, and through this, Ambrosius emphasizes the proper use of wine.

Key Words: Saint Ambrose, Wine, Drink, Eulogy, Letters

논문 투고일	2023년 9월 8일
논문 수정일	2024년 1월 30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3년 12월 1일
